

# 시립예술단과 함께 봄 문화나들이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주 시립국악관현악단과 시향, 시립합창단이 정기공연을 선보이고, 시립발레단은 발레 갈라콘서트 두번째 무대로 인사한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4일 정기공연을, 시립오페라단은 4월 6~7일 제1회 정기공연 오페라 '아이다'를 준비 중이다.



### ◇시립국악관현악단, 김원중 협연 '신춘음악회'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올 첫 번째 정기연주회는 '신춘음악회'로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태동하는 봄의 감성에 젖어들기 좋은 관현악 무대를 선보인다.

소리꾼 김산옥의 진행으로 첫 시작은 가야금 3중주 '나나노난실'로 문을 연다. 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파트(이정숙, 김한아, 김미진, 송영란, 권다해, 김성이, 최민정) 단원들이 보여주는 초연 무대다.

단순한 선율을 다양하고 화려한 수법으로 연주하며 전조 또한 궁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마치 등 장단의 변화를 주어 가야금의 멋과 특징을 충분히 살린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무대는 정악곡 중에서 저음과 고음을 폭넓게 다루며 왕의 장수를 축원하는 곡인 '수연장지곡'이다. 이어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열어가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고 만든 곡인 '세상을 여는 소리'를 들려

준다.

네 번째 무대는 제32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장원, 동편제 수궁가, 흥보가 완창 발표회를 한 전지혜가 흥보가 중 한 대목인 '박타령'을 들려준다.

다섯 번째 무대는 경기굿 중의 창부거리에서 광대신이 인간에게 복을 주고 흥겹게 노는 모습을 담은 '창부타령'을 김광복 지휘자의 피리연주로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서 특별한 것은 국악관현악 연주와 더불어 '바위섬'과 '직녀에게'로 잘 알려져 있는 가수 김원중과의 협연무대다. 김원중은 '바위섬', '꿈꾸는 사람만이 세상을 가질 수 있지', '직녀에게'를 협연한다.

마지막 무대는 모듬북과 관현악의 협연곡인 '타:TA'.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관현악의 섬세한 선율이 어우러진 곡이다.

전석 1만원. 광주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43.

### ◇시향,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Dear Lenny

세계적 마에스트로이자 창의적인 교육자, 천재적 작곡가라는 명성과 함께 가장 친근한 음악가로 기억되고 있는 레너드 번스타인. 올해는 번스타인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다.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5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기념연주회를 개최한다.

'레니'를 기념하는 첫 번째 무대는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고자 했던 미국 작곡가 코플랜드의 '애플래치아의 봄'으로 시작한다. 현대무용단을 위해 만들어진 이 곡은 미국 개척시대 애플래치아 산맥의 산골마을에 사는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낭만적으로 묘사한 곡으로 서정성과 절묘한 리듬감이



피아니스트 조재혁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곡은 번스타인이 작곡한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주요 장면을 9곡의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한 곡으로 맘보, 차차차, 재즈 등 치솟는 듯한 선율들로 가득 차 있다. 정통 클래식에서 재즈와 남미 풍의 리듬을 가미해 세기를 뛰어넘으며 사랑받고 있는 이 곡을 광주시향이 창단 42년 만에 초연한다.

예매는 광주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R석 3만원·S석 2만원·A석 1만원(학생 50%). 문의 062-524-5086.

### ◇시립합창단,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시립합창단은 15일 오후 7시 30분, 소극장에서 제172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선보인다.

우리나라 곡은 물론, 이탈리아, 러시아, 노르웨이, 중국, 미국 등 각국의 민요, 오페라, 종교, 현대음악을 다양한 합창곡으로 선보인다. 특히 임한귀 상임지휘자가 지휘와 해설을 맡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각 나라별 음악에 얽힌 배경과 곡 해설이 더해지면서 공연의 재미와 의미를 더한다.

출발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가곡 '진달래꽃',

특징이다.

이어서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접목하여 미국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연 명곡,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블루'를 선보인다. '킹 오브 재즈'라 불리는 폴 화이트먼의 의뢰를 받아

5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작곡한 곡이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협연한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곡은 번스타인이 작곡한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주요 장면을 9곡의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한 곡으로 맘보, 차차차, 재즈 등 치솟는 듯한 선율들로 가득 차 있다. 정통 클래식에서 재즈와 남미 풍의 리듬을 가미해 세기를 뛰어넘으며 사랑받고 있는 이 곡을 광주시향이 창단 42년 만에 초연한다.

예매는 광주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R석 3만원·S석 2만원·A석 1만원(학생 50%). 문의 062-524-5086.

### ◇시립합창단,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시립합창단은 15일 오후 7시 30분, 소극장에서 제172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선보인다.

우리나라 곡은 물론, 이탈리아, 러시아, 노르웨이, 중국, 미국 등 각국의 민요, 오페라, 종교, 현대음악을 다양한 합창곡으로 선보인다. 특히 임한귀 상임지휘자가 지휘와 해설을 맡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각 나라별 음악에 얽힌 배경과 곡 해설이 더해지면서 공연의 재미와 의미를 더한다.

출발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가곡 '진달래꽃',

'산유화', '봄이 오면'을 시작으로 독일 가이벨의 시에 의한 합창곡 중 '유랑의 무리', 이태리 베르디의 오페라 '에르나니-축배의 노래', 스페인 춤곡 '엘 비토(El vito)'를 들려준다.

노르웨이 출신 작곡가 올라 아일로의 '북극광', 라트비아 출신 작곡가 에릭스 에센발츠의 '별'까지 유럽 곳곳을 음악과 함께 여행을 떠나본다.

후반부는 대륙으로의 여행이다. 러시아 '카링카', '트로이카'와 미국의 젊은 작곡가로 최근 크게 각광 받고 있는 제이크 톨스타드의 '할렘루야', '니온 니온'에 이어 중국 정율성의 '연안송'과 중국민요 '모리화'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우리 민요 '거문도 뱃노래', 뮤지컬 이순신 중 '나를 태우라'를 부르며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의 긴 여정을 마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415-5203.

### ◇시립발레단, 발레갈라콘서트 클래식 명작 발레

시립발레단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발레 갈라콘서트#2. 클래식 명작발레'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펼친다.

발레 갈라 콘서트는 시립발레단 41년 역사동안

쌓아온 역량을 선보이는 2018년 수시공연 시리즈로, 매월 광주 시민들에게 고품격 발레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공연된 '발레 갈라 콘서트#1. 클래식 명작발레'가 전석 매진으로 성료됨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는 '발레 갈라 콘서트'는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그랑 파드 뒤', '돈키호테 중 그랑 파드 뒤'이라는 모티브를 가진 이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를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보리스 아사피 에프 음악의 '베니스 카니발'이다. 베니스에서 열리는 수상축제 중 가장 무도회에서 만난 두 남녀와 친구들의 흥겨운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만물림을 든 남성 무용수와 탬버린을 든 여성 무용수들의 모습에서 이탈리아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관객을 위한 볼거리가 풍성할 뿐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해설이 곁들여져 발레 입문자와 어린 관객에게 인기가.

전석 1만원. 문의 062-522-8716.

/이연수 기자



시립합창단

## 투자 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팻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 거문도, 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